백두산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9호 - 주체91(2002)년 4월 23일 백두산 편집부

≪F-15K≫ 최종 선정, 매국배족 만행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방부는 19일 ****을 열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기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군당국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의 선정과 구입책동은 반제평화의 시대적 흐름으로 보나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변화된 한반도의 정세요구로 볼 때 백해무익할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차세대전투기구입에 5조내지 6조원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혈세가 탕진되는 것으로하여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 구입작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F-15K≫기를 선정해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매국배족적인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제 ≪F-15K≫기를 선정하게 된데는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저들의 대아시아침략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호전집단으로 하여금 전력을 증강케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기를 선정 구입하도록 부단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 토마스 슈워츠는 국방부가 미국제 ≪F-15K≫기를 선정하도록 부단히 압력을 가했고 미국 보잉사 부회장은 ≪한국≫육해공군 참모총장들과 잇따라 만나 ≪F-15K≫기를 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F-15K≫기 생산공장이 있는 미주리주출신의 미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본드는 ≪한국≫이 문제의 전투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전미국의 요구라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사대매국적인 식민지 ≪한국≫ 호전집단이 이같은 상전의 거센 압력까지 받았으니 차세대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K≫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F-15K≫기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데는 북침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한국≫전력을 저들의 대아시아침략전략의 돌격대로 써먹자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대통령 부시가 ≪악의 축≫망언을 하면서 이북을 반테러전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북에 대한 핵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문제의 ≪F-15K≫기가 핵무기를 적재할 수 있고 그 작전반경이 한반도경내를 훨씬 벗어난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식민지≪한국≫에 ≪F-15K≫기를 팔아먹게 됨으로써 ****으로 기업폐쇄위기에 직면해 있는 ≪F-15K≫생산업체를 살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도 미국이 ≪F-15K≫기 강매책동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호전집단으로 하여금 전력을 증강케 해 저들의 대아시아침략전략실현을 위한 준비를 더욱 완성하면서도 근 6조원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까지 벌어 저들의 배까지 불리는 미국이야말로 희세의 호전집단, 강도의 나라이고 그 행태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식민지≪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정세를 더 격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보다 큰 난관을 조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애국민중들이 문제의 ≪F-15K≫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전력증강책동을 중지하고 ≪F-15K≫기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연일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중과 겨레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려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난관을 조성하는 철전지원수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히 벌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1일

북, 日 유사시법 제정 추진 맹비난

이북 조선중앙방송은 22일 일본 정부가 유사시 법제 관련 법안 3건을 내각 회의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아 국회 심의에 넘긴 사실을 ≪재침 책동≫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방송은 이날 ≪극도에 이른 재침전쟁광증≫이란 제목의 ≪시사논단≫ 코너에서 일본이 올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19일 전에 유사시 법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마칠 예정이라며 ≪이것은 일본 반동들이 저들의 침략전쟁 수행에 필요한 전시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또 ≪일본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부추김 속에 1990년대 초부터 재침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건들을 갖추는데 주력했다≫면서 ≪이미 1990년대 말에 주변 유사시법과 자위대법 개정안 등을 채택, 발효시켜 교전권과 참전권, 자위대 무력의 해외군사활동을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추진 중인 유사시 법제 관련 3개 법안은 ≪무력공격사태 법안≫과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으로 이는 일본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시작하면서 일본전역에 전시체제를 수립하고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쟁법안들이라고 방송은 주장했다.

강진욱 기자
2002/04/22 연합뉴스

민노당 부패타락정치 저항운동

민주노동당은 22일 오전 시내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권영길(權永吉)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타락 정치에 대한 국민저항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대통령 아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야의 정치행태는 부패타락정치, 밀실거래정치, 오리발정치≫라며 ≪전국 100여개 지구당을 중심으로 기성정당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는 캠페인과 국민고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맹찬형 기자
2002/04/22 연합뉴스

2 종합
- 위대한 동지애 맥박치는 고전적 로작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계속 진행
- 현시대와 민족미술에 관한 미학토론회
- 미국 량면주의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 ≪신사참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
- 아시아 각국 일 총리 신사참배 비난 확산
- 누가 누구에게 퍼준다는 것인가

5 칭송
- 우리 아버지 (3)
-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오늘도 조선인민과 함께 계십니다

6 노작
- 조선노동당건설의 역사적 경험 (4)

8 세기와 더불어
- 6장 8절 라자구 등판에서 (2)

10 노동신문 정론
- 백두산 혁명강군 (1)

11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12 한국민족민주전선
- 한나라당은 반민족반통일역적패당
- 반미는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
- 대통령 지망생들에게 가르친다

14 투쟁보도
- 공무원 노조 결성, 지지 줄이어
- 철도청이 재파업 강요한다
- 인터넷 국가검열제도를 철폐하라

15 운동강좌
- 현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3)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가 맥박치는 고전적로작

≪로동신문≫ 21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강반석어머님탄생 100돐기념 오찬회참가자들과 하신 담화 ≪항일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이다≫발표 10돐에 즈음하여 론설을 실었다.

론설의 필자는 진실한 동지는 제2의 ≪나≫이며 이런 동지들이 뭉치면 하늘도 이길수 있다는것이 주석께서 지니신 투쟁신조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로작에는 무엇보다도 혁명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가 어려 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의리는 광복후 조국땅우에 혁명가유자녀학원을 세우시여 혁명렬사들의 자손들이 부모들의 대를 꿋꿋이 이어 가도록 하신 력사적사실들에도 어려 있고 생애의 말년에 먼저 간 선렬들의 령전에 비문을 쪼아 박는 심정으로 집필하신 회고록의 갈피마다에도 력력히 비껴 있다. 중국의 혁명전우 장울화를 추억하시며 그의 아들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로작에는 또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동지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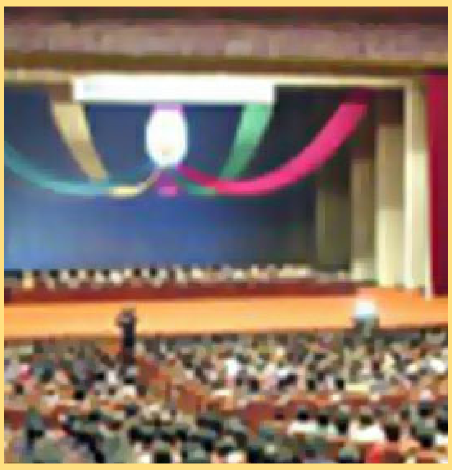
당안에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당, 군대, 국가사업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화와 같은 충성심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동지애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 지고 있다.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진정한 동지들이 있고 혁명적동지애와 의리로 뭉친 단결의 힘만 있으면 천만대군도 두렵지 않고 사나운 광풍도 쳐몰아 낼수 있다는것이 장군님의 배짱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펼치신 선군정치도 혁명동지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것이다.

론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여 주신 혁명적동지애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 배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지애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따라 주체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002/04/21 조선중앙통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계속 진행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단독 및 조별공연이 20일에도 성황리에 계속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 예술인들은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를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진보적인류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종목들을 무대들에 펼쳐 놓았으며 인류의 희망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따르는 만민의 열화 같은 마음을 뜨겁게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평양축전의 거대한 감화력과 생활력, 견인력을 보여 주며 민족적색채가 짙은 예술종목들로 축전무대를 장식하였다.

근 100명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로씨야 모이쎄예브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은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중국인민해방군총정치부 가무단은 봉화예술극장에서 단독공연들을 하였다.

로씨야무용수들은 ≪꼬빠크≫, ≪우즈베끼스딴요리춤≫, ≪군함에서의 하루≫ 등의 무용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중국예술인들은 이날 공연에서도 다채로운 예술작품들을 펼쳐 축전무대를 뜻 깊게 장식하였다.

중앙로동자회관에서 한 공연에서 인도네시아 그루수카르노예술단, 우즈베끼스딴예술단, 싱가포르 타스예술단, 베트남예술단, 스웨리예독창가는 성의껏 준비한 곡목들마다에서 자기들의 기량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평양대극장에서 재일조선인예술단, 벌가리아예술단, 벨지끄민속전통음악단, 캄보쟈독창가, 수리아독창가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출연자들의 다함없는 흠모심을 절절하게 노래한 종목들을 많이 내놓았다.

청년중앙회관에서 공연한 재중조선인예술단, 우크라이나무용단, 끼르기즈스딴예술단, 일조음악예술교류회예술단, 일본메이랑음악단은 ≪우리는 하나≫, ≪달밤≫, ≪봄향기≫를 비롯한 노래와 무용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재미조선인예술단과 국립교향악단은 모란봉극장에서 진행한 합동공연에서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조선은 하나다≫ 등의 종목들을 내놓았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몽골예술단, 네팔무용단, 프랑스음악단, 벨라루씨음악단, 노르웨이예술단, 로므니아음악가일행이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2002/04/21 조선중앙통신

제5차 현 시대와 민족예술에 관한 미학토론회

제5차 현 시대와 민족예술에 관한 미학토론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여러 나라와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대표들,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나라 예술단 단장들과 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조직위원회 장철 위원장이 ≪자주의 리념밑에 민족예술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현대적미감에 맞게 민족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적바탕에 발을 튼튼히 부이고 민족예술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현대화≫의 바람을 타고 이색적이며 불건전한 요소들이 흘러 들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문화예술분야에서 단결과 협조, 교류를 확대강화하고 자주적인 민족문화예술건설에 힘차게 떨쳐 나섬으로써 민족예술의 보다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 나가자고 말하였다.

중국대표는 ≪새 시기 중국의 민간문학예술≫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중국의 민간문학예술이 종류의 다양성, 형식에서의 민족성, 분포의 광활성 등의 특징과 민족정신을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중국문예발전의 토양으로 되고 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내가 본 조선의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수리아대표는 조선은 명백한 예술발전방향과 그에 대한 강령적 지침,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예술을 가진 미의 전형으로, 세계인민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해외에 살면서도 주체예술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긍지와 보람≫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재일조선인대표는 금강산가극단이 민족예술로 재일동포들에게 사회주의조국의 숨결을 안겨 주고 그들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며 애국사업을 힘 있게 벌리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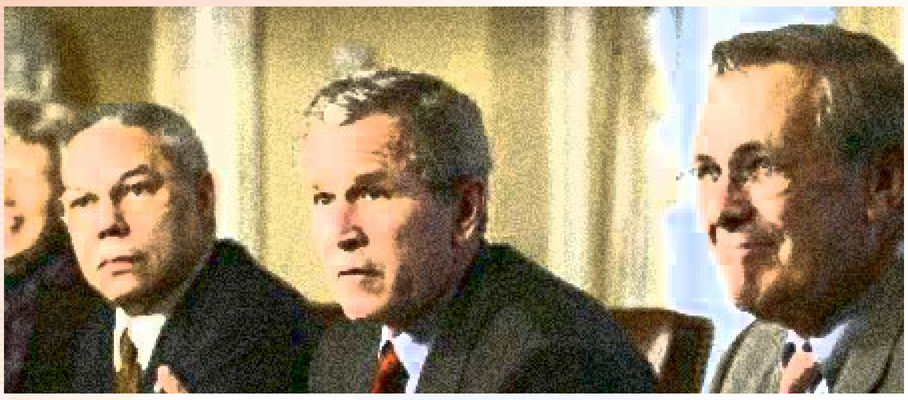
에짚트대표는 ≪문학예술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주장을 용납한다면 예술은 진보를 위한 투쟁의 실제적인 무기로 되지 못할것이며 예술인들이 재능을 발휘할수 있는 앞길이 막혀 버릴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씨야대표는 ≪조선은 나의 음악작품창작에 활력을 준다≫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지금 로씨야에서 노래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합니다≫, ≪장군님과 **김정숙**어머님≫, ≪맑은 아침의 나라≫를 비롯한 백두산3대장군의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자기가 창작한 노래 ≪평양-모스크바친선은 영원하리≫를 불렀다.

또한 조선, 마다가스까르, 몰도바, 네팔대표들도 토론하였다.

2002/04/21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량면주의는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얼마전 미국무성고위관리는 워싱톤에서 가진 한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의 ≪미싸일수출≫을 무력으로 저지시키겠다, 미국에서의 동시테로이후 국제적인 반테로련합이 이루어 지는 가운데 북조선이 ≪정보제공, 원조물자수송, 의료지원 등 모든 면에서 반응이 없었다≫고 줴쳤다.

≪로동신문≫ 21일부는 그의 발언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며 현 미행정부의 립장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라는것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 무력침공의 구실을 찾으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핵 및 미싸일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그것을 바다와 공중을 통해 세계 여러 지역에 제일 많이 운반하여 배비하고 있는것도 미국이다. 미국대통령 부쉬자신이 미국에 2만여개의 핵탄두가 있다는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실토한바 있다. 지난 1월 부쉬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이어 미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우리 나라를 핵무기사용대상으로 선포한것은 조선침략전쟁을 핵전쟁으로 전환시키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미국이 우리에게 한 대화재개제의가 저들의 침략적인 핵전쟁정책으로 하여 안팎으로 고립배격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벗어 나기 위한 숨박곡질이 아닌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원칙을 양보하면서까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그러한 관계개선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량면주의에 격분하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도 전쟁에 대응할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

2002/04/21 조선중앙통신

≪신사 참배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

일본 고이즈미 총리 신사참배 규탄 집회서, 경찰, 화형식때 강제 진압

≪태평양 전쟁때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체중이 70kg에서 40kg이 될 정도로 일을 하면서 (입에서) 피가래가 섞여 나왔습니다. 반항을 하면 (일본 군인들이) 총칼로 몸을 쑤시기도 했습니다.≫

일제때 강제 동원됐다던 오행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앞에는 오 할아버지를 비롯해 흥사단,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 명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말한 황금주(83) 할머니는 ≪19살 때 사립학교 졸업을 25일 남겨놓고 처녀 공출을 당했다≫면서 ≪2년이 지나면 고향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3년, 5년이 지나도 고향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황 할머니는 이어 ≪결국 8 · 15해방이 되어서야 일본군인 속옷을 얻어 입고, 먹을 것을 얻어먹으며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며 오열했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이수호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일본 정부는 아시아의 평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참배를 통해 일본의 군국화, 우경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흥사단 시민실천위원장 박인주 씨도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전쟁의 일본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곳≫이라며 ≪한 · 일 공동 월드컵이 개최되는 시기에 일본이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독도, 일본 교과서,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일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에게 적개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일본 국회는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유사법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일본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자위대 파견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 내용도 발표됐다.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이신철 정책기획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최신 일본사≫ 교과서의 왜곡내용에 따르면 △독도 등을 자신의 영토로 최초 기술 △동아시아 ≪침략≫을 ≪진출≫ 또는 ≪진주≫로 표현하는 등 전쟁 및 전쟁을 미화 △임나일본부설 강조 △고교 26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 없음 △명성황후 살해에 대해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 등은 독단으로 민비를 살해≫라고 기술, 일본 정부 개입 부정 △침략 전쟁 호도와 은폐 등이 열거됐다.

한편 오후 1시 10분께 행사장에서는 주최쪽인 시민사회단체와 경찰 사이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최쪽은 당초 계획대로 ≪최신 일본사≫ 교과서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사진이 담긴 대형 깃발을 태우는 화형식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로 집회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한 여성 회원이 몸을 다쳐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왜 정부가 화형식을 못하게 하는가,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우수란 기자
2002/04/22 오마이뉴스

아시아 각국 日총리 신사참배 비난확산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주중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데 이어 22일에도 주일대사를 통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다.

우다웨이(武大偉)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일본 외무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기습≫ 참배는 ≪중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양국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면서 강한 불만과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리자오싱(李肇星)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아나미 고로시게(阿南惟茂)주중 일본대사에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중국 인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손상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또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이날 노동조합 단체들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수 십명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날 일본이 전쟁당시 중국에서 저지른 만행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일본 영사관앞으로 행진했다.

또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하는 국제적 대열에 합류했다.

클라크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는 ≪불행한 일≫이라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우방들에 전쟁범죄자들과의 연계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방문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2/04/22 연합뉴스

누가 누구에게 퍼준다는 것인가

지금 온 민중이 남과 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활성화돼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민중과 겨레의 이같은 강렬한 소망에 재를 뿌리면서 훼방을 하는 반통일역적들이 있어서 민중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협력사업을 북퍼주기라면서 악을 쓰며 시비질하는 이회창과 그 일당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통일운동가 김정수씨의 글 ≪누가 누구에게 퍼준다는 것인가≫를 이철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조국통일의 길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민족사적인 흐름을 달가와하지 않고 시샘하는 세력이 있어 온 겨레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이회창과 한나라당집단이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남북관계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일방적인 퍼주기니 뭐니 하며 그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얼마전에도 이회창패거리들은 덮어놓고 무턱대고 북한에 퍼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받지 못해 국내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남북협력사업을 악의에 차서 헐뜯어 각계의 신랄한 비난을 받고 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관계가 진전

되는데 도전해 계속되고 있는 이회창패거리들의 이같은 행태는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서로 반목질시케 하려는 고약한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혈육지간에 무엇을 얼마주고 받았다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족사이에는 퍼주기니 뭐니 하는 것과 같은 장사치들의 시장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민족은 조상대대로 이웃끼리 서로 돕고 유무상통하면서 화목하게 살아왔으며 이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미덕으로 자부해 오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회창패거리들이 조상전래의 이미풍양속에 칼질하다 못해 민족통일을 위한 숭고한 사업인 남북협력사업까지 퍼주기로 매도하고 있으니 세상에 악한 짓이면 이보다 더한 짓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회창패거리들은 애당초 민족의 넋이라고는 참새눈물만큼도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것들이 퍼주기 퍼주기하는데 도대체 북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지껄이는가. 사실 우리가 북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이 넘치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이산가족교환방문과 각종 분야에서 북과의 교역과 교류, 합작 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서 이남이 입는 덕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북이 남에 금강산관광권을 통째로 넘겨준 것만 봐도 그렇다. 민족의 자랑이며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관광사업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아마 수천억달러로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북은 경제적 이해타산에 앞서 금강산을 지척에 두고도 밟아볼 수 없는 이 땅 우리 민중의 아픈 마음을 가셔주기 위해 이같은 용단을 내렸던 것이다.

더구나 이남은 한반도에 평화라는, 돈으로는 다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북으로부터 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전쟁화약고인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북이 치켜든 선군정치의 덕택이다. 어느 한 문필가가 북의 선군정치가 아니였다면 이 땅은 아프간보다 더 참혹한 전란에 휩싸여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인도 없고 국회의사당도, 공단도, 언론사도 잿더미 속에 묻힌 황량한 폐허로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천만번 지당한 말인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이것은 이회창같은 것들이 지금 정치인이랍시고 활개칠 수 있는 것도 북이 선군정치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북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같은 혜택을 그래 이회창이 북에 퍼준다고 하는 것과 비길 수 있겠는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라고 했다. 퍼주기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퍼주기를 부르짖는 이회창이야말로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패거리들이 퍼주기 퍼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북에 퍼주었다고 할만한 명분도, 체면도 없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북이 얼마나 진심으로 도와주었는가. 광복후 새조국건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도 쪼개 써야 했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북은 물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남 연백골 농민들에게 후암저수지와 우의저수지의 물을 보내주고 전기가 없어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기를 보내주는 등 이 땅의 우리 민중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했었다. 엄청난 폭우로 수만명의 이재민

이 발생했던 84년 수재때 이북이 취한 구호조치는 북의 동포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솔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숭고한 화폭이었다.

막대한 양의 쌀과 시멘트, 의약품을 비롯해 북의 지성이 깃든 사심없는 구호품들은 혹심한 재난을 입고 절망에 빠졌던 수재민들을 다시 소생시켜준 생명수였다. 정녕 이북이 취한 구호조치는 그 양에 있어서나 성의에 있어서 구호역사가 생겨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최상최대의 것이였다.

북은 이처럼 뜨거운 혈육의 정으로 이 땅의 우리 민중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것들이 이에 감사하고 보답할 대신 오히려 북의 진정에 마구 칼질을 해대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회창패거리들이 북에 퍼주기를 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진짜로 퍼주고 가져다 바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그야말로 미국에 무턱대고 미친듯이 퍼주고 있다. 역대 위정자들은 반세기이상 이 땅을 불법강점하고 있는 미국 침략자들에게 8000여만평에 달하는 우리의 귀중한 옥토를 섬겨바친 것도 부족해 해마다 그들에게 3억달러이상의 유지비까지 퍼주고 있다. 침략자 미군이 50여년간 차지하고 있는 군사기지사용료와 그들에게 해마다 퍼주고 있는 유지비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른다. 당국자들은 또한 해마다 군비를 증강해 그의 대부분을 퇴화된 미국제 무기들을 사오는 방법으로 미군수독점체들의 돈주머니를 불궈주고 있다. 그들이 지난 수년간 미군수독점체들의 퇴화된 무기구입에 소모한 자금이 모두 85억달러에 달한다고 하니 미국에 퍼주는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퍼주기는 갈수록 그 도수를 더해가고 있다. 군호전집단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4대 무기체계사업, 다시 말해 차세대전투기(FX), 차세대유도무기(SAM-X), 차세대공격헬기(AH-X), 차세대구축함(KDX-3) 등의 도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는 무려 13조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미국의 무기강매압력과 그에 추종한 이회창과 같은 친미분자들의 책동으로 차세대전투기기종으로써의 선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F-15K≫기종이 5년후에는 폐기처분돼 박물관으로 들어갈 기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국 군호전집단이 추진하고 있는 4대 무기체계사업이라는 것이 손수 미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퍼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해 준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국고금이 미국으로 강물처럼 흘러들어가고 있다.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민중생활의 안정향상에 지출돼야 할 막대한 국고금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민생은 갈수록 영락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패거리들이 이같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북에 대한 퍼주기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흑백을 전도한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사실들은 이회창패거리들이야말로 민족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임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 있다. 외세의 충견이 되어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고 동족을 해치지 못해 안달인 이회창패거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염원을 실현할 수 없다. 어느때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긴요하고 민족대단결이 절실한 지금이야말로 온 국민이 민족반역의 무리이며반통일집단인 이회창패거리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 때인줄 안다.

퍼주기로 말하면 몇년 뒤에는 폐철에 불과할 미국의 무기를 엄청나게 비싼 값에 대량 들여와서 미군수독점체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해 안달이 나 하는 이회창과 그 패당들, 호전분자들이라고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0일~21일

시

우리 아버지 (3)

재 러시아동포 정일심의 마음을 담아

≪정일심≫
주석님 지어주신 그 이름
천만금 준대도 아니 바꿀 자랑으로
분에 넘친 표창으로 받아안은
저의 가슴엔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보금≫이란 그 이름이

두만강 물소리 정답게 흐르고
백살구꽃 아름다운 회령은
내가 살던 옛 고향
이 땅을 보금자리로 살라
아버지는 ≪보금≫이라 이름 지었어도
나라를 빼앗겨
고향마저 떠나야 했던
나의 이름은 ≪보금≫이가 아닌
≪이리나≫

이 딸의 보금자리 하나
찾아주지 못하고
아버지는 이역땅 한줌 흙이 되었어도
항일의 불길 만리를 헤쳐
40년 세월 찾고찾아
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일성주석님

하기에
내 삶의 진정한 보금자리는
어버이주석님의 품
그품에 다시 태어난
우리 온 가족은 주석님의 아들딸

예로부터 이름이란
자식의 앞날을 축복해
바라는 마음 간절한 소원을 담아
집안의 가장이 지어주는 것
집안의 가장이 지켜주는 것

남편과 저의 이름
자식들의 이름 모두 지어주시고
넓은 품에 안아 지켜주신
주석님은 정녕
우리 가정의 아버지

주석님 사랑 그대로
주석님 보살핌 그대로
주석님 지어주신 이름 더욱 빛내주시고
내 가슴에 ≪조국통일상≫까지 안겨주신
김정일장군님

낯설고 물설은 해외에서도
떳떳이 가슴펴고 살도록
참된 조국 안겨주시고
존엄과 권리를 안겨주신
장군님은 해외동포들의 아버지

몸은 비록 멀리 이역땅에 살아도
주석님 앞에도 일심
장군님 앞에도 일심
대를 이어 변함없이
충성의 일심 빛내렵니다

아,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4월의 봄하늘가에 눈부신 태양
오늘도 자애론 아버지모습으로
내 가슴 속에 웃고 계시는 주석님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옵니다!

흠모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오늘도 조선인민과 함께 계십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시리아아랍사회부흥당 및 민족진보전선 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선물을 19일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아랍사회부흥당 민족 및 지역지도부 성원이며 부대통령인 무함마드 주헤르 마샤리까단장이 이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불가리아 공산당 제1서기가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선물을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제1서기가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따쥐끼스딴공산당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 보내온 선물을 이북을 방문한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이 해당부문 일군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던 세계 각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이 평양을 떠나면서 20일 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는 이번에 조선에 체류하면서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은것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오늘도 조선인민과 함께 계시며 조선이 그이께서 계시던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신심에 넘쳐 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이끄심으로 하여 위대한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제국주의세력의 그 어떤 위협과 압력도 용감하게 물리치고 가까운 앞날에 자기 조국을 모든것이 흥하고 통일된 강국으로 훌륭히 전변시킬것이라고 편지는 강조하였다.

조선노동당건설의 력사적 경험 (4)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노작 - 주체75(1986)년

3. 당대열의 조직사상적 공고화(2)

당대열을 정예화하는 것은 우리 당건설의 근본요구의 하나입니다. 당대열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규약은 당원들의 생활규범이며 향도지침입니다.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면 훌륭한 혁명가로 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은 당규약상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함으로써 자신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당대열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당세포 핵심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모든 당원들을 정수분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원래 계급의 선진분자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나 당을 이루고 있는 당원들의 정치사상적 준비정도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 안에는 정치사상적 준비정도가 높은 당원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당원도 있습니다. 모든 당원들을 한꺼번에 다 주체형의 혁명가로,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준비된 당원들로 세포의 핵심대열을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핵심 대열을 끊임없이 늘리는 방법으로 모든 당원들을 정수분자로 키워야 합니다.

당대열의 정예화를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당장성사업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당장성사업을 바로 하여야 당대열을 주체형의 혁명가들로 끊임없이 확대할 수 있으며 당의 정치력을 계속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장성사업은 당의 계급적 성격과 혁명적 원칙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에는 병사,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의 우수한 핵심분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 가운데서 후비당원을 요해,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교양하며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개별적 입당절차에 따라 제때 당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 투지와 기백이 넘쳐나는 새세대들을 당에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성사업에서는 당대열을 늘린다고 하면서 당 문을 무원칙하게 열어놓거나 당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당 문을 닫아매는 것과 같은 좌우경적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문을 무원칙하게 열어 놓으면 당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반대로 당 문을 아주 닫아매면 당대열의 양적 성장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이와 같은 경향들을 반대하고 당 장성사업을 당적, 계급적 원칙에서 전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당장성사업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당 역량이 골고루 확대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대열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당은 같은 사상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뭉친 조직이며 당의 주인은 당원 대중입니다. 당 안에서는 독단과 전횡이 허용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 안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당원들이 높은 열의와 창발성을 가지고 당사업과 당활동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당 안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당원들이 당적 권리를 옳게 행사하도록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각급 당지도기관들을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당원들의 주체적 의사에 따라 모든 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밑으로부터 비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지도기관들은 당원, 대중의 감독과 통제 밑에서 사업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당원들 앞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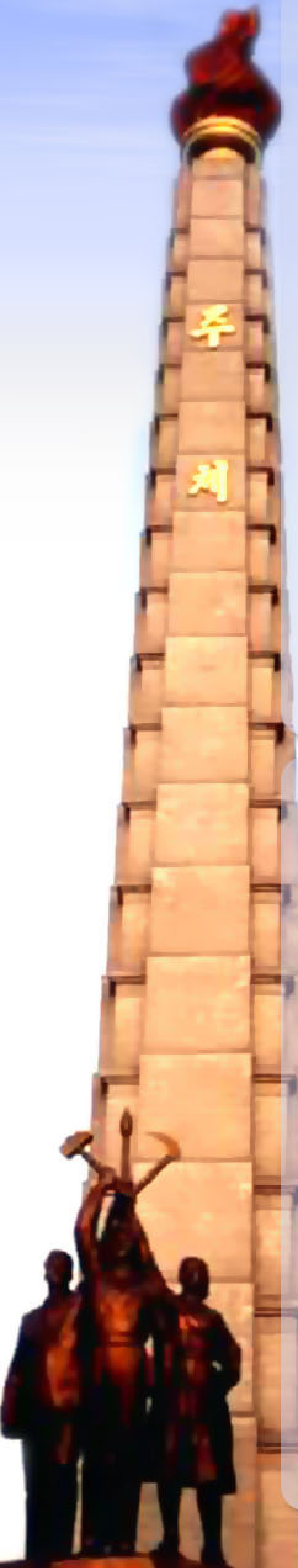
당은 혁명을 위하여 조직된 정치적 부대이며 당의 정치력은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에 있습니다. 당 안에 혁명적인 규율을 세워야 당대열의 행동상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전당의 단합된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규율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 규율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조직원칙과 규범대로 활동하면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인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당의 규율은 모든 당원들에게 다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규율입니다. 당 안에서는 높은 당원과 낮은 당원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중규율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당 규율에 복종하는 것은 당원의 의무입니다. 당원들은 지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하나의 당 규율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당의 규율은 당원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은 당 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 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자각성은 강한 요구성과 결합될 때 더욱 높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당조직들은 모든 당원들이 당 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합니다.

당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당사업의 기본 고리이며 당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당생활을 강화하여야 간부들과 당원들을 당에 충실한 주제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 수 있으며 당대오를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생활이란 당원들의 정치생활, 조직사상생활입니다. 당원이 되어 당생활을 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인 사림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고 값높은 삶으로 됩니다. 우리는 당원들 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이 자신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 순간도 살 수 없으며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원은 당조직을 어머니 품과 같이 여기고 존엄있게 대하여야 하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를 받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원들 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규범에 따라 당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끊임없는 교양과 비판을 통한 사상개조과정이며 혁명성,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 노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 헌신적 복무의 정신이며 이것은 다원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입니다. 당원들은 당생활을 통하여 혁명성,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이 당생활을 옳게 조직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잘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생활 총화와 당 학습을 비롯한 당조직내 조직사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고 모든 당원들이 거기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며 당 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실속있게 조직, 운영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사상생활을 조직, 진행하는데서 우리 당이 세운 새로운 당생활 체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조직들은 항일유격대의 당생활기풍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당생활 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여 당원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당적 분공을 옳게 주고 그 수행을 적극 도와주며 분공수행정형을 제때 총화하고 끊임없이 새 과업을 주어 모든 당원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판을 강화하여 당원들이 언제나 강한 비판의 분위기 속에서 당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판을 강화하려면 비판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반대하고 원칙적 비판의 정신으로 당원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을 혁명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생활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시킨다는 것은 당원들이 당조직사상생활을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혁명가로서의 당원들의 활동과정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과업수행을 떠난 순수한 당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혁명과업수행 정형을 놓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당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역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간부들과 당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 수 있으며 당의 사상적, 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과 당원들 역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간부들과 당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 수 있으며 당의 사상적, 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기초 위에서만 당대열을 조직적으로 공고히 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업에서는 언제나 사상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하며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당사상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당과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입니다.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상사업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사상교양사업에서 언제나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은 유일사상교양입니다. 유일사상교양에서 진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 것입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풍모입니다. 우리는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주체사상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고 주체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은 우리 혁명의 올바른 전략전술이며 우리의 모든 활동의 지침입니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알고 당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필요한 사상정신적 재부를 전면적으로 담고 있으며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풍부한 풍모를 진정한 모범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활동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은 우리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룹니다. 혁명교양, 공사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관이 확고히 서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풍모를 갖춘 혁명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키워야 합니다.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에서는 계급교양과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 풍모는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됩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확고한 노동계급적 관점을 가지고 노동계급의 혁명위원에 끝까지 충실하며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특히 착취와 압박을 받아 보지 못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 속에서는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사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입니다. 사상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집단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반대하고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애국주의이며 그것은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 사회주의제도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공산주의혁명가로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자야말로 참다운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영도 밑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높은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문화 유산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융성, 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 재산과 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경리를 잘 관리, 운영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기나라 혁명에 충실한 사람만이 국제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할 수 있으며 또한 진정한 국제주의자가 되어야 참다운 애국자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그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적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잘 지키며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생활준칙에 맞게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은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머리 속에 깊이 뿌리박힌 낡은 사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낡은 사상은 꾸준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강한 사상투쟁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여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온갖 낡은 사상의 잔재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동적 사상의 독소가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제국주의들은 사상문화적 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 타락하게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부르조아 사상과 썩어빠진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상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바로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상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형식은 선전과 선동입니다. 선전사업은 당의 사상과 이론, 노선과 정책을 체득시키는 것이며 선동사업은 대중을 혁명과업 수행투쟁에 불러일으키는 사업입니다. 당사상사업에서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을 옳게 결합하여 다같이 힘있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선전사업은 논리정연하고 알기쉽게 설득력있게 해야만 하며 선동사업은 감동적으로 기백있게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과 계기에 맞게 기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논리성이 있고 진실하고 설득력 있는 선전과 호소성, 전투성, 기동성이 있는 선동 사업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으며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일 계속)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 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이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8. 라자구등판에서 (2)

다음으로 우리가 회의에서 론의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국군과의 발목을 만주땅에 잡아매두고 그들로 하여금 항일을 계속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당시 수만명에 달하는 력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일본군을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일본사람들 자신이 류포시킨 ≪천하무적≫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말 이 세상에는 일본을 당해낼 힘이 없고 일본군대에 대적할만한 군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투쟁을 거의다 포기하였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란 어떻게 하면 일본군에게 죽거나 포로되지 않고 아직 전쟁의 불찌가 튀지 않고 있는 산해관너머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타산뿐이였다.

일본군은 간도지방에서 왕덕림부대에 함께 라자구를 사수하자고 결의하였다. 라자구를 사수하자면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쏘련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해야 하였다. 구국군의 속셈은 쏘련을 거쳐서 중국본토로 가자는 것이었다. 반일부대 두령들과 병사들 속에서 쏘만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었다 수만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리두와 마점산도 쏘련을 경유하여 중국본토로 달아나버리였다. 구국군의 도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일본군과 전투를 한 번 본때있게 하여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적황군≫에 대한 환상과 공포심을 완전히 숙청해버리는 것이였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가운데서 왕덕림을 설복할 수 있는 적임자는 주보중이였다. 주보중은 국제공산당의위임을 받고 왕덕림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나는 주보중에게 왕덕림을 설복하여 그가 어떤 일이 있던지 퇴각을 중단하고 유격대와의 련합전선에 나서도록 해보라고 권고하였다.

≪우리는 동만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유격전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소. 문제는 구국군인데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왕덕림을 설복해서 그들이 만주땅에 버티고 서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항전을 계속하도록 해야 하오. 그 사람들이 쏘련으로 가겠다는건 씨비리에 가서 사회주의혁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쏘련땅을 거쳐 관내로 도망치려는 것이요.≫

주보중은 그말을 듣자 해결하기 힘든 숙제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들이 아직 속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국군이라는건 사실 겁쟁이들의 집단이요. 일본놈들의 비행기가 우르릉하고 삐라 한 장만 뿌려도 부들부들 떨면서 꽁무니를 빼는 시라소니무리란 말이요. 그러니 도저히 전투를 해볼 수 없구만, 그렇게 비겁한 무리들을 나는 난생처음 보았소. 구국군과 련합하여 일본군을 친다는 건 망상이나 다름없소.≫

주보중과 같이 련합불가능설을 제창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였다. 이렇게 되어 의견대립이 생기고 불가능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다. 그때는 다 제마끔 영웅이고 천재고 지도자였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지에 나가서 지방공작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림시적인 조직인 것만큼 누구라고 할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나 회의는 내가 의장이 되어 집행하였고 회의는 회의대로 하였다. 내가 의장으로 회의를 집행한 것은 직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구국군들과의 사업에서는 **김일성**이 로장이라고 하면서 중국동무들이 나를 추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라자구회의다.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로서는 마지막회의였다. 이 회의를 마감으로 병사공작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라자구회의 결정에 따라 나와 리광, 진한장과 주보중, 호진민은 왕덕림부대, 오의성부대, 채세영부대와의 사업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오의성과 채세영은 다 왕덕림의 부하들이였다.

얼마후 오의성부대에 간 진한장한테서 통보가 왔다. 오의성이 라자구회의의 방침에 응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락관적인소식이였다.

내가 왕덕림부대와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일본군이 라자구 일대로 밀려들었다. 적들은 우리 주력부대가 왕덕림부대와 련합전선을 형성하면 큰일이라고 하면서 대병력을 동원하여 빠른속도로 공격해왔다, 왕덕림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라자구에서 도망쳤다. 수천수만명의 대병력이 돌개바람에 말려가는 가을락엽처럼 일본군의 탄막을 피해 쏘만국경쯤으로 철퇴하였다

몇십명에 지나지 않는 유격대력량만으로는 도저히 라자구를 사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구국군과 함께 동녕현쪽으로 후퇴하였다. 동녕현까지 따라가서라도 기어이 구국군을 돌려세우자는 것이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병력과 격전을 벌이면서 후퇴하다니 우리는 도중에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 우리가 적의 대군과 싸우면서 동녕현방향으로 갈 때에는 추운 동지달이어서 반일병사들가운데도 얼어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구국군을 따라가면서 꾸준히 왕덕림을 설복하였다. 그때 그가 나의 말을 들었더라면 공동전선을 하여 동북지방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왕덕림은 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끝내 쏘련을 거쳐 중국관내로 가버리였다.

우리는 왕덕림과의 교섭을 단념하고 로정을 바꾸어 최종목적지인 왕청지구로 향하였다. 라자구에서 수백리를 걸어 쏘만국경이 보이는 곳까지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서는 내 마음은 비길데 없이 침울하고 암담하였다. 수만명에 달하는 구국군도 감히 일본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뺑소니를 치는데 18명밖에 남지 않은 우리 부대는 이 겨울을 도대체 어떻게 나야 하는가. 어떤 묘술로 이 엄혹한 고비를 넘겨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8명이면 일본사람들이 즐겨 쓰던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창해일속≫과 같이 미미한 존재라고 할 수 있었다.

부대가 40명으로부터 18명으로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사정에서였다. 싸움에서 전사도 하고 병을 만나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몸이 허약해서 내보낸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투쟁을 못하겠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독립군출신의 나이 많은 대원들과 일부 농촌청년들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 하였다.

마지막까지 대오에 남은 것은 길림시절부터 공청조직에 망라되어 투쟁하던 동무들이였다. 그 18명을 데리고 사선을 헤치면서 왕청으로 나올 때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사람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어야 어떤 극단적인 정황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혁명가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는 왕청으로 가는 로상에서 오의성의 련락병을 만나 그와 함께 행동하였다. 그 련락병의 이름은 맹소명이라고 하였다.

우리 대원들을 처음에 신분은 알아보려고 그를 단속하였다. 일본간첩들이 사방에 우글우글할 때였으므로 우리는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몹시 경계하였다. 맹소명에게는 구국군병사공작위원회와 반일부대와의 협약으로 발급된 반일회원증이 있었다. 맹소명은 반일회원증 뿐만 아니라 오의성이 왕덕림에게 보내는 응원요청서까지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오의성이 련락병이라는 것을 완전히 신임할 수 있었다.

맹소명이 천교령으로 가게 된데는 그럴만한 곡절이 있었다.

≪사실은 이 편지를 전하려고 동녕까지 갔댔는데 왕덕림이 달아나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오의성한테 오니 그도 로모저하에 한개 대대만 떨구고 흥석라자쪽으로 철수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글쎄 로모저하에 떨궈두었다는 그 한개 대대마저 소산차구(천교령)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대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나중엔 죽더라도 항일을 해야겠으니까요.≫

맹소명의 항일의식은 아주 견결하였다. 그는 동북3성에 시국을 평정할만한 인물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대장님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이 이긴다고 생각합니까?하고 물었다.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어떤 작가는 사람은 패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 눈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맹소명과 함께 소삼차구방향으로 갔다는 그 대대장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는 그 한개 대대에 련합전선의 명줄을 걸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대대만은 꼭 설복하여 투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맹소명은 왕청까지 가서 우리와 함께 요영구방위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한 잊을 수 없는 동행자였다. 1974년에 맹소명은 나에게 편지를 보내여 우리가 라자구등판에서 만나게 된 때를 감회깊이 상기시키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지난날 우리와 함께 고난속에서 우의를 나누던 오의성의 련락병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가 돈화합작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가장 힘들게 넘긴 고비는 로흑산에 갔을 때라고 생각한다. 로흑산까지는 덜렁덜렁하였지만 구국군이 동행하였으므로 우리는 고생을 많이하면서도 별로 외로운 줄을 몰랐다. 그러나 그들이 쏘련으로 다 도망가버린후로는 그 광막한 등판에 우리 18명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왕덕림이 월경하면서 남겨두고간 일부를 데리고 주보중까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다나니 우리는 완전히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돌아치면서 투항을 권고하는 삐라를 뿌리고 땅에서는 ≪토벌≫에 동원된 일본군무리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하였다. 우리 나라의 고산지대에서조차 볼 수 없는 혹독한 추위와 허리를 치는 장설 때문에 대오는 좀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었다. 림시변통으로 그날그날 얻어먹으며 힘들게 저축해둔 식량도 바닥이 났다. 5월에 소사하에서 입고 떠난 군복마저 다 찢기고 터져서 살이 드러났다.

이런 때에 우리는 라자구등판에서 마가성을 가진 좋은 로인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어려운 고비를 모면하였다. 우리가 마로인을 만난 것은 음력 섣달그믐날이었다. 사상으로 보면 무정견, 무소속인데 국민당의 정치에 대해서는 덜돼먹었다고 침을 뱉는 령감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세주의가 강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남들에게 덕을 베풀지 않고서는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착하고 인정깊

→

은 호인이였다.

마로인한테는 집이 두채가 있었다. 아래채에는 우리가 들고 위채에는 구국군패잔병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반쏘사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쏘련이 공산국가라는 리유로 월경을 시도하지 않고 만주에 떨어진 자들이었다. 패잔병들가운데는 오의성이 로모저하에 떨궈두고 갔다던 곽대대장의 부하들도 있었다.

맹소명은 려장을 풀어놓기 바쁘게 구국군의 맥을 짚어봐야겠다고 하면서 자진하여 위채의 패잔병들을 찾아갔다. 나는 그에게 구국군병사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움직일 용의 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타진해보라고 하였다. 맹소명은 곽대대장의 부하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1차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그들의 속심을 떠보고 승산이 보이면 김대장이 가서 정신적으로 교섭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패잔병들을 만나고 온 맹소명은 어깨를 떨구고 우울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련합전선은커녕 아무것도 못할 놈들입니다. 저놈들은 벌써 로비가 될 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로인도 구국군패잔병들이 우리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주었다. 그들이 우리의 총을 탈취해가지고 비적의 대오를 확장할 계획이라는 것이였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보니 우리는 모두 우리자신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에서 반일부대병사들이 수천수만명 와글와글할 때에는 일본군과 싸움을 해도 당장 이길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다 달아나고 없는데다가 우리 대오마저 18명밖에 남지 않고보니 그저 막연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왕청에 갔대야 총 여라문자루밖에 없으니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 연길에 있는 무기라야 총 몇십자루 정도밖에 안될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저 무지막지한 패잔병들마저 우리의 무장을 빼앗겠다고 날치니 이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라자구의 이름모를 등판까지 왔는데 왕청으로 돌아갈 길도 묘연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자신에게 반문도 해보았다. 무장을 줘버리고 다시 돌아가 지하투쟁이나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생스럽더라도 무장투쟁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동요가 없었다고 하면 진실을 왜곡하고 력사를 위조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나는 그대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에서 동요가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며 또 숨길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강철도 산화되면 변하는 법이다. 인간은 강철도 아니거니와 그 강철보다 약하고 변이성이 많은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강철보다 훨씬 더 억세다고 말할 수 있다. 강철은 자기힘으로 산화과정을 막을 수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사상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요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인간을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할 줄 하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때문이며 혁명가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 줄 아는 강의하고 창조적이고 희생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향방을 잡지 못하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장투쟁을 계속해야겠는데 남아있는 대원들이란 모두 스무살도 채 안되는 흥안의 청년들이였다. 내자신도 아직은 경험이 어리다고 할 수 있었다. 길림바닥에서 삐라를 쓰고 연설이나 하며 돌아다닐 때에는 모두가 영웅호걸이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다 초학도들이였다. 자하공작을 할 때에는 방법이 많았지만 수만명의 우군을 다 잃어버리고 패잔병들만 남은 무아지경에서 18명의 행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였다.

윗집에 든 패잔병들은 토비가 될 것을 계획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노릇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조직군중이 있는 곳에 가야 무슨 방법이 나서겠는데 조선인부락은 200리쯤 가야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어간도 일본군이 없는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였다.

혁명이란 이다지도 간고한 것인가. 불과 2-3년동안이면 손쉽게 결판을 낼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험한 벼랑 끝에 와 서게 되었는가. 안도에서 나팔을 불며 도도하게 출발하였던 우리의 대오가 황량한 이 산등에서 전진을 멈추고 마는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이 부대를 무으려고 끼니를 건는 것은 며칠이였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몇날 몇밤이였던가. 이 부대를 위해 세상을 하직하시는 어머니의 곁에도 가있지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들과도 생리별을 한 내가 아닌가. 차광수도, 최창걸도 이 대오를 위해 청춘을 바치지 않았는가. 차광수는 돈화에 정찰을 나갔다가 전사하였다.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고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온 지구덩어리가 통째로 매달린 듯 무겁기만 하였다. 내가 아궁이앞에 앉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로인이 내옆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자네가 책임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이라는 사람이 눈물은 왜 흘리는가?≫

≪눈바람을 맞으면서 오느라고 그런가 봅니다.≫

대답은 그런식으로 굼땠였으나 나는 사실 눈바람탓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었던 것이다.

로인은 한참동안 나를 굽어보면서 길다란 채수염을 연방 내리쓸었다.

≪자네가 저 위채에 든 놈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은데 너무 상심하지 말게. 내 오늘저녁 좋은곳에 데려다주겠으니 거기 가서 며칠 푹 쉬라구. 한 스무날 쉬면서 공부도 하고 영양보충도 하면 머리가 제갈량처럼 잘 돌아갈걸세.≫

밤중에 마로인은 깊은 잠에 곯아떨어진 우리들을 모조리 흔들어깨워 설음식으로 빚어놓은 만두를 먹이였다. 그리고는 한 50리 실히 떨어진 곳에 있는 산막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산막은 비행기도 볼 수 없는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산막집이라고 해야 한 장 정도의 삿자리나 겨우 깔 수 있는 크기의 방이였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헛간이 하나 붙어있을 뿐이였다. 헛간에는 마로인이 옹노를 놓아서 잡아 얼군 토끼와 노루도 있었고 밀, 강냉이 같은 낟알과 망도 있었다.

≪방은 좁지만 짚을 펴고 지내면 불편한데로 그럭저럭 급한 대목을 넘길수 있을 거네. 여기에 숨어있으면서 몸들을 추세우라구. 바깥소식은 내가 며칠에 한번씩 와서 전해주지. 자네들이 이 산막을 떠날 때는 길안내도 내가 해주겠네.≫

로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산막에 불을 지펴줄 때 우리는 고마움에 목이 메여 다같이 눈물을 흘리었다. 그처럼 한 적하고 쓸쓸한 등판에서 마로인과 같이 성실한 은인을 만나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차례질수 없는 행운아였다. 대원들은 모두 ≪하느님≫이 우리를 굽어본다고 롱을 하였다.

우리는 그 산막에서 보름 남짓하게 정양도 하고 학습도 하고 노루사냥도 하였다.

산막집에는 마로인이 가져다 둔 책들이 많았다. 소설책도 있고 정치서적도 있었으며 위인들의 전기도 있었다. 마로인이 비록 깊은 산중에서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학식은 아주 풍부한 분이였다. 여럿이 순번을 다투어가면서 경쟁적으로 읽다가니 책은 어느것이나 다 보풀이 일고 너덜너덜해졌다.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소감을 발표하거나 일정한 주제를 정해놓고 론쟁을 벌이었다. 제가끔 맑스가 어떻게 말했고 레닌이 어떻게 말했다는 식으로 명제를 따로 인용해가면서 자기주장을 론증하느라고 열을 올리었다. 맑스주의창시자들의 명제나 유명한 작가들의 명문가운데서 몇가지씩은 다 뜬금으로 외워가지고 다닐때였다. 그 당시에는 청년들이 모여앉기만 하면 손중산도 비판하였다. 그 누구를 숭배하는 것도 멋이였지만 모두다 숭상하는 위인을 비판하는 것도 하나의 멋으로 되고 있었다.

그때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할 때였다. 모두가 다 걸작이고 영웅호걸이였다.

우리는 이 산막에서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론의하였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왕청의 조선인부락에 가서 거기에 있는 별동대를 모아가지고 부대를 확대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누구나 다 투쟁을 계속하자고 결의하였는데 해룡에서 입대한 한 동무만은 몸이 약해서 우리들과 같이 무장투쟁을 계속할 것 같지 못하다고 실토하였다. 그 동무의 체력이 유격투쟁을 할만큼 준비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였다.

우리는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대하여 까박을 붙이거나 문제시하지 않았다.

≪못가겠으면 여기서 직방 못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혁명은 억지로 하지 못한다. 강권이나 위협으로써는 할 수 없는 것이 혁명이다. 그러니 가려면 가고 투쟁을 계속하려면 남아서 투쟁해야 한다.≫

나는 부대를 책임진 지휘관으로서의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고 각자가 스스로 결심을 채택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며칠후 우리는 한자리에 다시 모여앉아 대원들의 결심을 들어보았다. 일행중 16명은 죽는 한이 있어도 혁명을 계속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데 나머지 두명은 부대를 떠나게 해달라고 제기하였다.

해룡에서 온 동무는 이번에도 몸이 약해서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겠으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자기를 비겁쟁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하였다. 몸이 약해서 못하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를 따라다니기가 힘들면 집으로 가라, 우리는 그걸 허물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꼴을 해가지고는 못간다. 옷이 다 꿰져서 거렁뱅이꼴이 되었는데 그런 몰골로야 부모들품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 가기는 가되 조선인부락에 가서 려비를 얻어가지고 의복이랑 해입고 가라고 하였다.

다른 동무는 쏘련에 넘어가서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하였다.

≪쏘련에 보증인도 없이 무턱대고 넘어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는지 로동을 시키겠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다. 왕청에 가서 일을 좀 하다가 그곳과의 련계가 맺어지면 조직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두 동무는 내 말을 긍정하면서 내가 하라는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후 우리는 마로인의 안내로 무사히 라자구등판을 떠났다. 로인은 우리를 왕청현 전각루까지 안내해 주였다. 참으로 친절하고 다심하고 인정깊은 로인이였다. 몇해후 우리가 근거지안팎에서 적들을 사정없이 답새기던 유격투쟁의 활성기가 도래하였을 때 나는 얼마간의 천과 식량을 가지고 라자구등판을 찾아갔다. 그러나 마로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지금도 나의 기억속에는 마로인의 영상이 60년전의 모습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어느때인가 나는 작가들에게 그 로인을 원형으로 하여 가극이나 연극을 하나 만들어보라고 하였다. 그 로인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는 가극이나 연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소재이다.

그 겨울에 우리가 라자구오지에서 굶어죽지 않고 얼어죽지않고 총탄에 맞아죽지 않은 것은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무슨 힘이 시련속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였는가, 무슨 힘이 우리를 패배자나 락오분자로 만들지 않고 승리자로 만들어 항일의 기발을 그냥 추켜들게 하였는가고 자문하군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혁명에 대한 책임감이였다.≫라고 긍지에 넘쳐 자답하군 하다. 그 책임감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눈구뎅이속에 그대로 주저앉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죽어도 조선을 구원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라자구등판의 눈사태속에 파묻혀 더는 일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끝)

백두산혁명강군 (1)

조선인민군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정론 - 주체91, 4월 21일

무적의 총대와 함께 백전백승의 70년이 흘러 왔다.

영광의 군기들이 빛나는 군공을 비껴 담고 선군시대의 하늘가에 힘차게 펄럭인다.

우리의 영용한 륙해공군장병들이 주체의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백전로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를 우러러, 우리 군대를 세계적인 강위력한 대오로 키워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을 우러러 삼가 최대의 경례를 드린다.

(1)

백두산혁명강군,

이는 백전백승과 붉은기밖에 모르는 우리 군대에 성스러운 력사가 부여한 최상급의 호칭이다.

한 나라 군대의 나이가 70년이면 그것은 대단한 관록과 력사를 가진것으로 된다.

우리 군대는 70년의 력사를 가진것도 훌륭하지만 그 70년동안 백전백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해 온것으로 하여 그 자랑이 비길데 없다.

강한 군대, 승리하는 군대에게만이 추억의 권리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과 그 직접적계승자인 인민군대가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불멸의 위훈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찬란한 혁명투쟁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

력사에 불패의 강군이라고 자랑하던 군대가 얼마나 많았던가.

한때 요란한 말발굽소리 울리며 찬란한 군사적영광속에 대륙을 누비던 대군들도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군력의 쇠퇴와 함께 멸망하고야 말았다.

하여 ≪백전백승의 군대란 없으며 또 있은적이 없다.≫는 말은 공인된 격언처럼 되여 왔다.

창건의 첫 걸음부터 70성상 걸음걸음 승리만을 기록하는 군사적기적을 조선인민군이 창조하였다.

전쟁과 전투들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군대, 자기 조국과 인민에게 승리를 가져다줄수 없는 군대는 벌써 무장집단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력사의 페지들을 펼쳐 보면 한 군대의 승리는 자기 인민에게 존엄과 영광을 주었고 한 군대의 패배는 자기 조국의 존엄과 권리를 잃게 하고 수치와 멸망을 가져 왔다. 한 군대가 완전히 격파되여 한 인민이 완전히 정복되군 하였고 그렇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데는 수십년, 백년, 지어 수백년이 걸려야 했다.

한 민족의 비극은 결국은 군력이 약한 탓에 빚어 지는것이다.

이 땅에서는 군대가 약해 제 나라 궁성파수도 침략자가 서는 웃지 못할 비극이 생겼고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해 제 나라 군대가 강제해산되는 처참한 광경도 펼쳐 졌다.

민족의 무장력이 보잘것 없다나니 마침내 조선인민이 통채로 왜적의 노예로 전락되고 삼천리강산이 피바다로 화하였다.

조선의 현대력사는 군대가 약해서 잃었던 조국을 혁명군대의 강한 힘으로 다시 찾고 억세게 지켜 온 력사로 특출하다.

우리 혁명무력은 세차례의 대전에서 승리한 강군이다.

항일무장투쟁의 승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 근 반세기에 달하는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

이 승리들을 통하여 우리 군대는 그 어떤 강적도 다 때려 부실수 있고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력사에 공인시켰다.

1932년 4월 25일

이날은 수난속에 흘러 가던 민족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돌려 세울 위대한 힘이 탄생한 대사변의 날이였다.

안도의 토기점골등판에 정렬해 선 유격대오앞에 서시여 한손을 높이 추켜 드시고 결사항전을 호소하시던 청년장군 **김일성**동지,

아직은 작았던 이 하나의 대오로 하여 조선의 력사가 크게 달라 지게 되리라는것은 누구도 몰랐다.

이 대오가 이제 천으로, 만으로 불어 나 일제의 100만대군을 삼대 베듯 격멸하고 조국을 광복하게 될것이며 그 대오가 또다시 정규적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여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놓게 되리라는것을 누가 다 알수 있었으랴.

새 군복을 떨쳐 입고 무기를 휴대한 대원들이 정렬한 자랑스러운 모습을 오래오래 바라보시며 강반석어머님께서 눈물에 젖어 든 음성으로 조용히 하신 말씀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 준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으니 이제는 됐다. ≫

이제는 됐다.

이 뜨거운 한마디말에 이 무장대오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 걸으신 험한 길들과 무수히 넘으신 준령, 수없이 가지신 모임들과 아까운 동지들의 희생 등 눈물겨운 로고와 간고한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참으로 고귀한 산아이라는 피어린 체험이 울리고 있다.

이 소박한 말에 끌끌한 군사가 있으니 이제는 조국광복도 문제 없고 조선의 먼먼 미래도 문제 없으며 만사가 다 잘될것이라는 어머님의 심원한 총대철학이 웅심 깊게 울리고 있다.

아시아의 걋맹주갸로 등장하여 동방천지에 대포와 비행기, 무한궤도의 굉음을 울리며 ≪무적황군≫의 위세를 뽐내던 포악무도한 일본제국주의가 항일유격대한테 된매를 맞기 시작했다.

귀전에 들려 온다.

소왕청과 라자구, 보천보와 간삼봉, 무산지구 등 항일의 전구들에서 울리던 멸적의 총성들이

대부대활동과 소부대활동의 배합, 집중된 적은 분산시키고 분산된 적은 각개격파하며 동쪽의 적을 치면서 서쪽의 적도 치며 동쪽에서 소리내고는 불의에 서쪽의 적을 치며 견고한 진지에 있는 적은 끌어 내여 치고 단숨에 천리길을 쭉 빠지며 적들끼리 싸우게 하고 새로운 지역을 선회하는 등 빨찌산들의 맹활약이 백두산전설과 더불어 눈에 선히 떠오른다.

1945년 8월 15일 동무들 방금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조건 항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처럼 기승을 부리던 일제는 드디여 저들의 완전한 패배를 자인하고 우리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웨치시던 우리 수령님의 음성 얼마나 격정에 넘쳐 있었던가.

우리 혁명무력이 두번째로 맞다든 적이 미제국주의이다.

첫번째 적수였던 일제는 아시아를 제패하려던 강적이였다면 두번째 적수 미제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날뛰는 력사상의 가장 강대한 세력이였다.

갓 정규무력으로 꾸려 진 조선인민군이 제국주의우두머리 미제와 맞서게 되였으니 이런 엄청난 력량대비는 세계전쟁사에 류례가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과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것은 누구이고 축포를 쏴올리고 전승열병식을 한것은 누구였던가.

조선인민을 우습게 여기고 덤벼 들었던 미국놈들의 넋살이 떨어 져 나갔다.

수많은 리수복이들이 청춘의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았고 수많은 조순옥이들이 반땅크수류탄을 품고 적의 땅크밑으로 들어갔으며 수많은 한계렬이들이 ≪나의 고지≫를 지켜 불사신처럼 싸웠다.

어뢰정으로 적의 중순양함에로 돌입하여 격침시킨 세계해전사의 기적도 조선인민군이 창조하였다. 우리의 용감한 ≪매≫들은 ≪하늘의 요새≫라고 뽐내던 공중비적 ≪**B**-29≫전략폭격기들을 묵사발로 만들어 놓았다.

세계군대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군앞에 영웅적이라는 말이 붙었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오늘까지 근 반세기의 나날이 흘러 갔다.

이 나날이 과연 평화였던가.

원쑤들은 어느 하루 한시도 우리에 대한 침략기도를 포기해 본적이 없다.

≪푸에블로≫호사건, 판문점사건, 핵사찰소동 등 전쟁의 불집이 당장 터질것 같은 정세가 그칠새 없었고 각이한 명칭을 띤 적들의 군사연습소동으로 화약내가 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것은 총포성 없는 전쟁, 끝 없는 장기전이였다.

이 장기적인 힘겨루기에서 우리 군대가 조금이라도 해이되거나 약화되였더라면 이 땅에서는 백번도 더 전쟁이 일어 났을것이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세계에 없는 유일한 구호를 내건 조선인민군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원쑤들이 이 땅에 포탄 한발 날리지 못한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세계를 둘러 보라.

미제는 싸워서 이길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폭탄세례를 들씌우고 먹어 치우군 하지 않았는가.

이 땅에 근 반세기동안 평화가 흐른것은 그자체가 미제의 패배를 말해 주는것이며 우리가 매일, 매 시각 승리하였다는것을 말해 주는것이다.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수 있다.

항일의 혈전만리도 헤쳐 왔고 전화의 불길속도 뚫고 나왔으며 근 반세기의 총포성 없는 대결에서도 승리한 조선인민군을 당할 자 이 세상에 더는 없다는것을.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승리,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위훈의 주인공은 백두산혁명강군이라고 소리높이 웨친다.

(2)

백두산혁명강군 !

이는 수령의 군대, 위대한 백두산장군의 군대인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에 대한 성스러운 호칭이다.

조선인민군의 백전백승의 비결, 력사상의 모든 군대와 다른 우리 군대의 특출성을 알려면 백두산장군들의 군대로서의 우리 군대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군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건군시조로 하고 백두산을 고향으로 한 군대, 백두산장군혈통을 이어 가며 백두산장군들을 닮은 군대이다.

우리 군대의 모습은 곧 **김일성**장군, **김정숙**장군, **김정일**장군의 모습이다.

백두산장군들이 자신들의 피와 살을 가르고 숨결을 부어 탄생시키시였으며 애지중지 체모를 갖춰 주시고 힘을 키워 주시며 력사의 진두에 자랑높이 내세워 주신 우리 군대,

백두산장군들의 사상이 우리 군대의 지도사상이고 백두산장군들의 위력이 우리 군대의 위력이며 백두산장군들의 력사가 곧 우리 군대의 승리의 력사이다.

계급사회의 발생과 함께 세상에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 생겨 난 때로부터 수천년이 흘러 왔다. 인류의 건군사에서 로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의 력사가 개척된 때로부터도 백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군사력에 의해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여 온 까닭에 그 어느 인민이나 힘 있는 군대, 승리하는 군대를 갈망하여 왔다.

그러나 자주적인민이 절대적으로 신뢰할만 한 리상적인 군대는 력사에 출현해 보지 못하였다.

인류는 주체조선의 혁명무력을 통하여 군대가 갖출수 있는 가장 리상적인 면모를 보게 되였으며 군대가 지닐수 있는 가장 위력한 힘을 알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은 자기의 70년 승리사로써 혁명하는 나라의 군대가 가장 인민적인 군대로 되자고 해도 수령의 군대로 되여야 하고 가장 강한 군대가 되자고 해도 수령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 군대는 이른바 ≪엄정중립≫의 군대도 아니고 ≪통일전선≫의 군대도 아니며 ≪전 인민적군대≫도 아니다.

자본의 아성에 포화를 들씌우며 출현한 혁명적무장력들처럼 낡은 군대에서 갈라져 나와 혁명적으로 조직된 군대이거나 폭동군중의 군사화로 형성된 그런 군대도 아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특색은 수령의 품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력량으로 력사무대에 태여났다는데 있다.

우리 군대에는 애초에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생명체안에는 오직 수령의 사상과 정신만이 흘러 넘쳤다.

(내일 계속)

≪기념특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강철의 영장이시다
제2회 - 학사 한원용 선생 주체91, 4월 21일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위대한 영장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위대한 영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세상에 군대가 생겨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강군도 명성을 떨친 군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군대와 같이 사상정신, 도덕적 풍모에서도 단연 첫째이고 전투력에서도 으뜸이며 인민과의 연계에서도 제일인 무적필승의 군대로 자라난 강군은 동서고금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날 수 있은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련의 한 원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기에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났고 그 어떤 도전도 단매에 요절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밑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해서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군사력에서 기본은 군인대중이며 군인들의 사상의식입니다. 적과의 싸움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며 혁명군대의 위력은 본질에 있어 사상과 신념의 위력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사력 타격무기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합니다. 때문에 혁명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사상을 틀어쥐고 전군을 사상과 신념이 강한 무장대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찍이 사람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해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셨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우리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이 꽉 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은 사상과 신념이 강한 강군의 절대적인 표징이며 첫째가는 우월성입니다. 그것은 이 정신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 표현이며 혁명군대가 가져야 할 사상과 신념의 핵이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충성의 무장대오로 만드는 것을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이 강한 강군으로 키우며 그 위력을 높여 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이 문제 해결에 큰 힘을 넣어 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 인민군대 안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인민군대 사상사업의 기본방향, 기본목표를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전군을 최고사령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며 모든 군인들을 혁명의 제일선에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인민군대 안의 모든 정치사상 교양사업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백두산 3대장군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데 모를 박고 사상교

양사업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려 인민군 장병들 모두가 언제나 절대 숭배심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숨쉬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인민군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편단심, 충성 다했던 김혁, 김책 동지들을 비롯한 우리 혁명의 일세대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의무이기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전에 도덕과 양심으로 깊이 간직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민군대가 전군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오늘의 7연대가 되자라는 전략적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오중흡 7연대칭호쟁취운동을 몸소 발기하시고 이 운동을 활발히 벌려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와 끊임없는 노고에 의해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 절대숭배심이 차 넘치고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바쳐 사수하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 꽉 들어찬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선 대오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길영조 영웅이 희생을 무릅쓰고 불타는 비행기를 끝까지 조종해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보위한 소행, 인민군 군인들이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되게 되자 백두산 3대 장군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보며 최후를 마친 영웅적 소행, 뜻밖의 일로 적들에게 억류되였을때 놈들의 위협공갈과 끈질진 회유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존함과 존칭을 정중히 부르도록 강경히 요구하고 당신이 없으며 조국도 없다는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불러 놈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온 인민군 군인들의 소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전군이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정신이 꽉 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강군은 우리 인민군대 밖에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 애국주의화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높은 계급의식과 애국심은 혁명군대가 가져야 할 다른 하나의 고유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불패의 위력을 낳는 사상정신적 힘의 원천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을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틀어쥐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선 인민군대에서 반미, 반일 구호와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을 반대하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특히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시대의 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워 내나라 내조국을 빛내는 벅찬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깊이 새기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은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아지게 되였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입장은 단호해졌고 총대는 무자비해졌습니다.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덤벼드는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이 될 것이며 적들은 침략적 아성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적 동지애가 차 넘치고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위풍이 활짝 꽃피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를 위해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맡고 있는 지위와 임무는 서로 다르지만 다같이 혁명전사들이고 혁명동지들이라는 관점과 전사들을 위하여 군관들이 있고 지휘관들은 전사들을 위한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바로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지휘관들이 전사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친동생처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군 군인들 속에서 창조된 혁명적 동지애와 상하일치, 관병일치의 숭고한 모범을 거울로 삼고 인민군 군대 모두가 그것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이끄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우리 인민군대 안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순간에 자기 한몸을 덮어 혁명동지들과 전사들을 구원한 김광철 영웅이 보여준 것과 같은 혁명적 동지애가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 인민군대의 첫 영웅인 리철민 동무도 지난 1월 10일 수류탄이 터지는 순간에 자기 한몸을 덮어 혁명전우들을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민군대는 정치사상적으로 뿐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쏘련 국방상 원수 야조브는 ≪삼백여만의 대병력과 세계 일등급의 현대적인 무장장비를 자랑하던 쏘련군대는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당도 사회주의도 지켜내지 못하였고 자기 존재마저 유지하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군건설 위업의 계승자를 바로 모시지 못하고 서방과의 공* 사상전선에서 패하여 무장대오가 사상적으로 와해되였기 때문이다. 승리만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군원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자가 될 목표 밑에 일당백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선군인들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상태는 가장 높은 현대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가진 강군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위대한 영장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한나라당은 반민족 반통일역적패당

그럼 이번엔 ≪한나라당은 반민족 반통일역적패당≫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위원회에서 북의 정권과 북의 주민들을 ≪분리인식≫하고 ≪선평화 후교류협력≫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의 이른바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걸 꾸며내 내외의 커다란 반발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게 어떻게 돼먹은 것이고 그 의미가 뭔지 하는데 대해서 알아봤으면 합니다.
김현규 : 잘 알고 계시는 문제이지만 어느 한 나라 당의 기본노선이라고 할 때 그 당의 정책적 기조, 다시 말하면 당이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관하게 거머쥐고 나가야 할 전략전술적 정책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때 이번에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만들어낸 ≪대북기본노선≫은 한나라당무리들의 북에 대한 정책, 다시 말해서 북을 어떻게 보고 대하며 그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또하나의 ≪사기협잡문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정당이며 미국의 졸개정당으로써의 한나라당의 정체가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이라는게 뭐냐 하는 건데요. 그건 한마디로 민족을 반대하고 통일을 부정하며 동족을 모해압살하고 대결을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북을 제1주적으로 삼고 고립압살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시종일관 감행해 왔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처럼 역대 집권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던 극히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문서까지 꾸며낸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봅니다.
사회자 : 까마귀들이 모인 곳에서 까욱소리밖에 나올 게 없다고 반역의 무리인 한나라당에서 무슨 바른 소리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의 반역적 본질에 대해서 얘기됐으면 하는데요.
김현규 : 우선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북의 정권과 북의 주민을 ≪분리≫해 인식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북의 체제를 걸고 들며 반북궤변을 늘어놓은 것부터가 언어도단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교류협력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느니 북의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건 사실상 북의 제도변경을 운운한 부시의 망발을 되받아 외운 것으로써 미국의 부추김밑에 북과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이라고밖에 달리는 풀이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 : 이건 사실상 북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궤변이죠. 이렇게 볼 때 한나라당의 ≪대북기본노선≫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정면 배치되고 더욱이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통일적인 ≪범죄문서≫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나온 ≪상호주의≫도 역시 반민족적인 분열논리, 대결논리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규 : 원래 남북관계를 ≪남북합의서≫에도 명기돼 있습니다만 그건 결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나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간의 관계, 다시 말해 민족문제, 통일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민족문제를 등가교환식, 내가 하나 주면 너도 하나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더욱이는 민족공동의 가치기준도 없는 ≪상호주의≫논리를 남북관계에 적용한다는 건 이북과 대결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밖에 달리는 풀이할 수 없습니다.
대북기본노선에 써먹은 ≪투명성≫보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순전히 몇푼의 돈이나 물건짝같은 것을 미끼로 북을 개혁개방에로 유도해가지고 북의 내부를 와해분열시키자는 겁니다.
사회자 : 그렇죠.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선평화 후교류협력≫의 원칙이라는 걸 내든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이번에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들고나온 기본노선을 보면 평화보장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규모 교류협력은 적지에 우리의 생명과 자산을 들여놓는 꼴이라며 ≪선평화 후교류협력≫이라는 괴이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따져놓고 보면 남북간의 교류협력도 바라지 않고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개선을 막아보려는 범죄적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선평화 후교류협력≫원칙이란 뒤집어놓은 ≪반평화≫, ≪분열대결론≫이다 그말입니다.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과 한나라당패거리와 같은 호전광들때문입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북침을 노린 사상최대규모의 통합전쟁연습을 벌여놓고 한반도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갔습니다. 미군이 ≪한국≫을 강점하고 미국의 대한반도침략정책을 추구하는 한 제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그건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선평화를 부르짖으려면 마땅히 이 땅에서 미군을 내쫓고 미국의 대한반도침략정책을 반대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헌데 이회창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런 것들은 당반위에 올려놓고 아닌보살하면서 선평화를 부르짖고 있으니 이게 어디 될 말입니까.
사회자 : 아닌보살하는 정도가 아니죠. 주한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집행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게 오늘의 한나라당패거리들의 행태가 아닙니까. 평화를 파괴하면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니 그래 이게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뭡니까.
김현규 : 옳은 말씀입니다. 결국 그건 남북공동선언을 뒤집는 행동이고 이산가족방문단교환과 같은 적십자인도주의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인데요. 그거야말로 한쪼각의 민족적 양심도 없고 북을 어떻게 해서나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에 개질을 하는데서 살구멍을 열어보려는 이회창패당만이 그따위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죠.

사회자 :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면서 점수를 따보려는 반역정당만이 그런 수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더욱 가관인 건 이번에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른바 ≪국토개발계획≫이라는 것까지 만들려고 책동하는 건데요.
김현규 : 그야말로 개꿈같은 소리죠. 역적패당만이 할 수 있는 허황한 잠꼬대같은 소리라 하겠는데요. 도대체 ≪국토개발계획≫이 뭡니까. 이건 본질에 있어서 선행통치배들의 이북 수복계획의 재판이고 그의 변종이외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토개발계획≫이란 이남의 식민지체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북에까지 연장해보겠다는 수작인데요, 망상이라해도 이만저만한 망상이 아닐 수 없죠.
사회자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제는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북침**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북침통일의 개꿈이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가 있겠죠.
김현규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된 것을 종합해볼 때 한나라당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라는 건 이북을 악의 축으로 선포하고 북에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미국의 대북침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북침전쟁선언≫이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민족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분열≫과 ≪대결선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지금 내외에서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꾸며낸 ≪대북기본노선≫이 나오자마자 그에 강한 반발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자 :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썪은 달걀로 바위를 부셔보려는 것과 같은 허황한 개꿈을 꾸면서 잠꼬대같은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참으로 가소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자체가 사분오열돼서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한 주제에 집권을 노리면서 감히 허튼 망상을 하는 것 자체가 분수에 맞지 않는다 그말이죠.
김현규 : 이같은 추악한 ≪범죄문서≫를 조작해낸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밖에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6.15공동선언과 남북관계가 다 날아나고 이 땅에서 친미사대매국행위가 더 우심해져 통일애국세력, 민족민주세력이 더 가혹하게 탄압당하게 될 건 불을 보듯 명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그런 의미에서도 각계 민중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단호히 반대배격해 나서야 하고 그들의 집권책동을 결사분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이회창역적의 이른바 ≪국토개발계획≫이란 다시 말해서 북침통일,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북앞에서는 미국도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는 판인데 어디라고 이회창이... 미쳐도 이만저만 미쳤다고 하지 않겠죠. 제정신을 가졌다면 오뉴월 개꿈같은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0일~21일

반미는 노농운동의 주요과제

반미만이 통일의 길, 민족이 사는 길임을 반세기여에 걸쳐 뼈에 사무치게 느낀 노동자, 농민들이기에 지금 미군철수, 미군기지반환, 반미투쟁에 결연히 나선거죠. 그럼 이번엔 ≪반미는 노농운동의 주요과제≫ 이런 제목으로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단체들 앞에는 생존권투쟁과 함께 반미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연초부터 ≪악의 축≫이요 뭐요 하면서 이북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지난 2월에는 호전광부시가 잇따라 날아들어 주한미군과 장시간 전쟁모의를 한데 이어 3월 21일부터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핵무기를 비롯한 최첨단 대량살인무기들을 끌어들인 것만 봐도 이 땅에 핵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으로 덮쳐들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이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공갈은 곧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한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북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은 곧 한반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는 민족전멸책동입니다.

핵전쟁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예요. 현대전에는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핵참화에는 남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이 터진다는 건 민족이 공멸한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무모한 군사적 패권주의야망실현에 우리 민족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때문에 노농운동앞에는 민족의 생존을 지키고 한반도에 무겁게 드리운 핵전쟁의 먹구름을 제거하기 위한 반미투쟁이 절박한 과제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미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인 조국통일은 민족적 숙원이며 성업이죠. 우리 민중의 통일기운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찬물을 끼얹으며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 나서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이회창과 같은 냉전수구세력들을 사주해 계속 이북을 주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보법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떠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북침전쟁열을 올려 화해와 단합, 민족대단결의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한반도의 정세를 분열과 대결,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50여년동안 미국때문에 분단의 비극을 겪어온 것만해도 통분할 일인데 이제 더이상 미국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까지 능욕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농대중은 6.15공동선언을 차단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미국의 범죄적 책동을 짓부셔버리는 가열찬 투쟁으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겁니다.

반미가 현시기 노농운동앞에 나서는 절박한 과제로 되는 건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침탈책동을 분쇄하고 근로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미군의 ≪한국≫강점이후 체계적으로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켜온 미국은 지금 이 땅에 경제명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근로민중의 생존수단, 생계터전을 빼앗는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정리해고의 광풍은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어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하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맨주먹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생존수단을 잃는다는 것, 이건 곧바로 가정의 파탄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겨우 밥통이 붙어있는 노동자들도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생명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열악한 사업장들에서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와 같은 불공정무역을 강행해서 이 땅의 모든 시장을 개방시켜 놓음으로써 농어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고 있어요. 이처럼 미국의 악랄한 식민지경제수탈책동으로 이 땅의 경제와 민생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도탄에 빠져들고 근로민중은 생사기로의 벼랑턱위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지배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노농대중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노농대중이 강요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 미국의 ≪한국≫지배와 예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노농대중은 민중의 생존을 지키고 이 땅의 자주성과 민중생존권을 비롯한 민주민권쟁취, 조국통일위업을 이루기 위해서 반미투쟁을 주요과제로 내세우고 이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이 반미투쟁에 한결같이 나서면 주한미군은 쫓겨나지 않을 수 없는 거구요, 미국의 식민지통치도 끝장나게 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0일~21일

대통령지망생들에게 가르친다

16대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치열한 격전에 휘말려들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대권을 노린 후보가 난립하고 후보들 상호간의 진흙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후보들 모두가 대세론을 떠들며 국민들의 마음을 낚기 위한 장미빛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정치개혁, 세대교체, 지역주의정치 청산, 국민화합과 통합, 일자리창출과 부패청산 등 대권주자들이 들고 나온 공약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대권주자들이 목쉬게 공약들을 외쳐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엄하다.

왜 그런가. 대권을 바라보고 감언이설을 다하던 이 땅의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고 떠들어도 떠들라는 것이다.

민의에 충실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헤아리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떠드니 국민이 귀를 막고 돌아앉지 않는가.

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치가, 대권도전자는 패하기 마련이다.

대권주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자면 시대의 지향과 국민의 요구를 담은 공약을 내들어야 한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선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중병을 앓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서슬푸른 악법과 국정원이라는 폭압기관이 우리 국민의 손발을 얽어매고 있다.

아직도 진보적 사상을 보급하고 자주통일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 감시, 수배, 구속당하고 감옥들엔 양심수들이 갇혀 있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이 사회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이 땅을 휘감은 각종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공약에 귀를 기울일 국민은 하나도 없다.

다음으로 자주정치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주정치는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차적 표징이다.

지금 대권주자들 속에는 개혁정치를 펴겠다, 지역정치를 타파하겠다, 부패정치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꿈같은 소리는 접어두는 것이 좋겠다.

이 땅의 정치를 취락펴락하는 근본실세, 주인이 누구인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이 지속되는 한 이 땅에서 개혁을 골백번한다 해도 한국의 정치현실이 결코 달라질 수 없으며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산물인 지역정치, 부패정치의 병폐도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

이것은 반세기여에 걸치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그대로 웅변해 주고 있다.

대선에 도전한다는 사람들이 이같이 근본적인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만 부풀리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일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꼭둑각시정치가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나라, 제 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위해 힘쓰는 자주정치이다.

대권주자들이 이런 민의를 담으려면 당연히 반미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반미자주화는 오늘날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 국민의 일치한 지향으로 되고 있다.

그래 민심의 소재파악에 힘쓴다는 대권주자들이 부시의 ≪악의 축≫폭언과 방한을 계기로 이 땅에 활화산처럼 끓어번지는 민중의 반미감정을 그렇게도 읽지 못한단 말인가.

유감스럽게도 이 땅의 대권주자들 속에는 그런 민심을 읽으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회창처럼 오히려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의 귀맛에 맞는 공약을 내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를 맡길 수 있겠는가.

민심은 그들의 표에 벌써 ≪X≫표를 그어버렸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한다.

대권주자들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무조건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

통일은 7천만 겨레 모두의 소원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이 민족지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자세야말로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고 참정치인과 정상배를 판별하는 잣대이다.

지금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이 땅의 분단수구세력의 반북대결책동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현실은 부시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을 수호하고 그것을 무조건 실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만큼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바라는 정치인이라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수호하고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사회건설과 자주정치실현, 6.15공동선언이행, 이것이야 말로 민심의 소지이고 시대의 요청이다.

이것을 외면한 대권희망자들은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설사 대권을 쥐었다고 해도 국민의 버림을 받고 매장되고 말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금권과 권모술수, 폭력으로 국민을 얼려넘기고 내리눌러 권좌를 타고앉던 시대는 물러가고 있다.

대통령지망생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누구의 눈치를 볼 것없이 국민이 갈망하는 민주화, 반미자주화, 6.15공동선언실천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줄 안다.

이것이 내가 대권주자들에게 가르치는 정치의 A. B. C이다.

재야언론인 김철수
구국전선 제476호 주체91, 4월 21일

공무원 노조 결성, 지지 줄이어

김두관 전 남해군수 지지 성명, 창원시의회 건의안 채택 등

경찰의 집회 원천 봉쇄 속에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기습 결성식을 가진 가운데,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예상자가 공무원 노조 설립을 지지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경남도청공직협 사무실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옥중 출마한 김영길(43. 경남도청 근무) 씨를 초대 본부장으로 선출했다.

당초 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도청 도민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마산에 있는 경남도민일보사 강당에서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 봉쇄로 집회 장소도 바꾸고, 시간도 앞당겨 기습적으로 결성식을 가졌다.

대의원들은 공무원 노조 결성 선언문을 채택하고, 참석 대의원 105명 중 89.5%를 얻은 김영길 씨를 초대 본부장으로 뽑았으며, 기존의 ≪경남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을 해산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에 꺾이지 않고 자랑스런 공무원노동조합의 시대를 열었다. 도내 1만3000 조합원은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날까지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자≫고 결성선언문에서 천명했다.

오는 6월 13일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김두관 전 남해군수가 공무원 노조 결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김 전 군수는 이재용 전 대구남구청장(대구광역시장 선거 출마)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자치연대≫를 이끌고, ≪자치연대≫ 정책연구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1일 김 전 군수는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출범에 따른 지지 성명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연대는 성명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로 정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청렴한 공직생활을 추구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노조 출범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군수는 ≪당국은 노조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구속 등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연대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지방분권과 자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남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촉구하기는 처음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2차 본회의) 때 정동화(사파동) 의원 등 9명이 발의. 제안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관계자 앞으로 보내졌다.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서 ≪헌법 33조에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중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 경우 민주화의 불모지인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의회는 ≪지난 3년간의 공직협 활동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정당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 인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효 기자
2002/04/22 오마이뉴스

≪인터넷 국가검열제도를 철폐하라≫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54개 단체, 정통부 앞 기자회견

정보통신부가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오전 10시경 ≪글로벌 리더 e코리아 추진 전략보고≫ 행사를 열었지만,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사 앞에서 ≪인터넷 국가검열제도 철폐≫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이 아닌 ≪불온≫과 ≪유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을 규제해왔다≫면서, ≪인터넷 강국 한국≫의 후진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54개의 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검열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검열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공대위 54개 단체들은 홈페이지에 등급을 달지 않을 것이며, 등급거부 운동에 시민사회 각계를 동참시키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대안을 모색하면서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 공동대표 김동민 교수는 ≪우리는 이제껏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강요받아왔으나, 인터넷은 대중들간의 의사소통과 우리들의 메시지를 위로 반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서, ≪인터넷 국가검열제도를 철폐하고 침묵을 지켜온 민중의 주장이 자유롭게 오가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는 선언문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규제는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검열≫이라며 ≪이 땅의 민중들이 반민주주의와 검열에 맞서 수십 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해온 것인 만큼 또 다른 검열인 인터넷내용등급제 역시 우리들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려던 공동대표들과 출입을 막는 경찰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었으며, 이에 장창원 공대위 운영위원장은 ≪국민으로서 민원을 내러 가는 것뿐인데, 이를 왜 막느냐?≫면서 항의했다. 경찰은 얼마 후 공대위와 장관의 약속을 확인한 후에 길을 내주었지만 공동대표들은 민원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선언문이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결국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이나영 기자
2002/04/22 오마이뉴스

철도청이 재파업 강요한다

국회앞 단식농성 들어간 철도노조

≪노사합의와 산업평화를 파괴한 것은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찬 철도청이며, 우리는 2만 5천 조합원의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시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http://www.krwu.or.kr 위원장 직무대행 이명식)이 노사합의 이행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합의안 이행과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전 집행간부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단식투쟁이라는 강경책을 선택한 것은 지난 2월 27일 노사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철도청은 철도노조와의 협상을 타결하면서 ≪월드컵 등에 즈음해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 및 고소 · 고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정부와 철도청은 약속이행을 외면하고 지도부 8명에 대한 구속과 대규모 고소 · 고발, 징계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또한 10명의 현장 지도부에 대한 파면조치와 노조의 무쟁의 선언을 철도청이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계속된 노사협의에서 원만한 노사협의를 위해 쟁의조정신청과 집회를 보류하고, 노사가 약속한 대로 잠정합의안까지 공개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나 ≪철도청은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와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잠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명식 위원장 직무대행은 ≪말로만 산업평화와 노사화합을 떠들어대는 철도청에 맞서 일터를 지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 이문옥 부패방지위원장, 이상현 대변인 등 당지도부가 철도노조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을 지지,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문옥 부패방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일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싸우겠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철도노조가 열심히 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준희 기자
2002/04/22 디지털말

현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3)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생각해야 할 것은,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철수 동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북측에서 반미자주화는 북에 대한 미제의 포위고립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혁명의 근거지를 보위하는 문제≫라고 규정했는데, 이것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의 본질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입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민족해방혁명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문에서 우리들은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할 때, 북측에 대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제거하는 과업과 남측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를 제거하는 과업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해방혁명의 수행경로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들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먼저 제거하면, 그에 따라 남측을 강점한 미제도 순차적으로 제거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이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되는 경로를 밟아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한 뒤에 우리들은 민족해방혁명의 개념과 수행경로에 관한 우리들의 인식을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켰습니다.

1) 북측의 혁명역량은 민족해방혁명역량이다

북측의 혁명역량은 북측의 지역혁명을 수행하는 사회주의혁명역량일 뿐 아니라, 남측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역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적 집단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한 주체혁명의 수행과정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으로 심화・발전됩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은 이미 오래 전에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양대 과업을 완수하였고 지금은 인간해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민족해방의 과업을 이미 완수한 북측의 혁명역량이 오늘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려고 투쟁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측에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려고 투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북측의 혁명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민족해방혁명의 목적을 북측에 대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방어적 의미로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주공방향은 사회주의 수호전이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입니다.

요즈음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북측은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에 대해서 자기희생적이라고 할만큼 아낌없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과 방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의 앞길을 **김일성**주의 혁명사상으로 밝혀주는 사상의 영도입니다.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을 사상적으로 영도하는 혁명영도의 유일한 중심은 조선노동당입니다. 조선노동당이 다른 나라의 민족해방혁명을 사상적으로 영도하면서 국제주의 원칙에 따라 적극 지원・방조하는 것은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을 전진시켜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수행하는 불멸의 공적으로 됩니다. 전세계 민족해방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분투하고 있는 조선

→

광 고

구국전선 제476호

주체91(2002)년 4월 21일

주체사상 학습실 – ≪세기와 더불어≫ (제27회)

절세의 위인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중에서
≪참관기≫ 쑥섬혁명사적지를 찾아서
무적강군의 탄생과 더불어 빛나는 업적
≪연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에세이≫ 우리 여성들도 꽃으로 피어야 한다
≪가사≫ 영생의 노래 외 8편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
≪뉴스확대경≫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는 미국의 충견
≪악의 제국≫의 창녀
≪시론≫ 대통령지망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날의 투지로 반미구국항전을 과감히 벌이자

평양소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 소식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지지도 노정 소개
인류의 태양을 향한 만민의 지성
태양절을 맞아 각종 행사들을 성대히 진행
≪단신≫

구 국 전 선

제476호 [주체91(2002)년 4월 21일]

주체사상 학습실	『세기와 더불어』(제27회)
절세의 위인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중에서
	[참관기] 쑥섬혁명사적지를 찾아서
	무적강군의 탄생과 더불어 빛나는 업적
	[연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에세이] 우리 여성들도 꽃으로 피어야 한다
	[가사] 영생의 노래 외 8편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	[뉴스확대경]
	6.15공동선언이행을 반대하는 미국의 충견
	「악의 제국」의 창녀
	[시론] 대통령지망생들에게 가르친다
	그날의 투지로 반미구국항전을 과감히 벌이자
평양소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활동 소식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현지지도 노정 소개
	인류의 태양을 향한 만민의 지성
	태양절을 맞아 각종 행사들을 성대히 진행
	[단신]

노동당이 자기 나라의 민족해방혁명을 북측의 지역혁명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자기만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고 북측의 혁명역량은 사회주의 수호전과 자기의 지역혁명(사회주의혁명)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그 주위에 강철 같이 단결한 영웅적 조선인민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온갖 난관과 시련의 폭풍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전면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항미대결전을 벌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그 대결전에서 승리하여 미제를 정치협상의 자리에 끌어내고 마침내 조미 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하였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에 대한 미제의 고립압살책동을 분쇄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조선을 이른바 ≪불량배국가≫라고 모욕하면서 협상 자체를 거부해왔던 오만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콧대를 꺾어놓고 그들을 정치협상 자리에 끌어냈을 때,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한 것은 조선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조선에 대한 적대관계의 청산이라는 개념을 전국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적대관계를 청산하라는 요구는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중지하라≫는 반국적 관점에서 나온 지역혁명의 요구가 아니라,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짓밟고 있는 미제 침략군을 철수하라≫는 전국적 관점에서 나온 민족해방혁명의 요구입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지난 10여 년 동안 미 제국주의자들을 상대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해왔던 대미정치협상은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는 민족해방혁명의 간고・험난한 수행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에 대해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과제≫라고 제멋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워싱턴에서 발표된 조미 공동코뮈니케는 미군을 철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제국주의 침략군을 철거하는 길을 열어놓은 민족해방혁명의 승리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항미대결전의 주공방향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승리가 아니라 남측에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의 승리에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은 조선혁명의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혁명역량이지만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민족해방혁명역량입니다.

2) 민족해방혁명은 전국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들은 남측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은 반국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중심내용입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남측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 세력을 제거하는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일 반국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북측의 혁명역량이 자기 지역혁명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혁명을 대행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측의 혁명역량이 민족해방혁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 북측의 혁명역량이 남측 지역혁명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수 동지는 ≪다른 어떤 혁명역량이 한국변혁의 임무를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남측의 혁명역량을 대신하여 남측의 지역혁명을 대행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누가 떠든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북측의 혁명역량이 남측의 혁명역량을 대신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누구를 대신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북측의 혁명역량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우리끼리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은 두 개의 지역에서 각각 수행되는 지역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전국적 범위의 혁명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의 본질은 하나이며 그 성격, 임무, 전략, 동력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의 본질을 마치 지역혁명의 성격, 임무, 전략, 동력을 구분하듯이 두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남측의 혁명역량이나 북측의 혁명역량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지역혁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국적 관점의 오류입니다.

우리들은 지역혁명의 ≪독자성≫이라는 구실을 내걸고 남측의 혁명역량과 북측의 혁명역량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반국적 관점을 배격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을 책임진 혁명의 주체는 두 개의 지역에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존재하며 혁명의 길을 함께 개척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역에서 분리된 혁명역량이 각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면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가 나중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하나로 결합되리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을 책임진 혁명의 주체는 처음부터 하나의 강고한 혁명역량으로 결합되어야 민족해방혁명의 승리, 북측 지역혁명의 승리, 남측 지역혁명의 승리, 다시 말해서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와 종국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북과 남)의 혁명역량은 지금 분단체제 아래서 분리되어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하나의 혁명역량이므로 당연히 하나의 주체로 결합하여야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의 주체로 됩니다. 남측의 혁명역량이 분단체제 때문에 북측의 혁명역량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혁명의 주체라고 볼 수 없으며, ≪혁명적 의지를 가진 역량≫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혁명의 성격과 발전수준은 서로 구분되지만, 그 지역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역량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포괄됩니다. 조선혁명을 책임진 혁명의 단일한 주체가,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두 개의 지역에서 성격과 발전수준이 다른 지역혁명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혁명의 본질을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핵심내용입니다.

김철수 동지는 우리들이 주장하는 ≪두 개의 전선≫의 관점은 오히려 남이 빠진, 북 중심의 반국적 관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관점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도외시하고 북측의 사회주의혁명만을 중시하는 반국적 관점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북측의 사회주의혁명만을 중시하면서,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자기 지역의 지역혁명을 도외시하고 북측의 사회주의혁명을 방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북 중심의 반국적 관점≫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남측의 지역혁명을 도외시하고 북측의 지역혁명을 방조해야 한다는 반국적 관점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개의 지역혁명의 지위와 민족해방혁명의 지위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정확히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남측에서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혁명을, 민족해방혁명이 아니라 남측의 지역혁명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남측 지역혁명의 반국적 관점으로 됩니다. 우리들의 관점은 ≪북 중심의 반국적 관점≫이 아니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입니다.

3) 두 개의 지역혁명에 대한 민족해방혁명의 지위와 역할

민족해방혁명은 남측의 지역혁명과 북측의 지역혁명의 당면임무를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상위의 혁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족해방혁명과 두 개의 지역혁명은 병렬적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지역혁명은 혁명의 발전수준이 서로 다르므로 고유한 성격과 임무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혁명의 당면임무는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남측의 지역혁명이나 북측의 지역혁명은 모두 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선차적으로 수행하는 혁명입니다. 두 개의 지역혁명이 발전하는 과정도 모두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선도됩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남측의 지역혁명)은 민족해방혁명에 의하여 규정되고 선도되는 지역혁명입니다.

김철수 동지는 ≪한국변혁역량이 강화되지 않고서 전국혁명의 전진을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지역혁명을 중심으로 민족해방혁명을 바라보는 반국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와 반대로 민족해방혁명을 중심으로 지역혁명을 바라보는 전국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족해방혁명을 중심으로 지역혁명을 바라보는 전국적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남측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은 남측 지역혁명의 적대세력만이 아니라 북측의 사회주의혁명과 남측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모두 봉쇄하면서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조선민족 전체의 적대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족해방혁명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북측의 지역혁명도 남측의 지역혁명도 최후 승리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민족해방혁명이 승리국면으로 전진되어야 남측 지역의 혁명역량도, 북측 지역의 혁명역량도 모두 결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주도역량과 방조역량

민족해방혁명은 북측의 혁명역량과 남측의 혁명역량이 함께 수행하는 혁명인데, 그 수행과정에서 북측의 혁명역량은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남측의 혁명역량은 방조적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역량이 있으면 방조역량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측이건 북측이건 지역혁명을 수행하는 데서 주력군이 있으면 보조역량이 있는 것처럼, 민족해방혁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냐 방조냐 하는 개념은 역량관계에서 결정되는 역할과 임무를 규정하는 개념이지 혁명실천에 대한 주체성과 책임성을 규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북측의 혁명역량이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주도역량으로, 우리 남측의 혁명역량은 방조적인 역할을 맡은 방조역량으로 됩니다. 북측의 혁명역량이 민족해방혁명의 주도역량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혁명역량이 혁명의 수령을 중심으로 강철 같이 단결되어 있으며,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있으며, 혁명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막강한 혁명무력과 혁명적 인민대중을 동원하고 있는, 인류역사상 최강의 정치조직(조선노동당)에 의하여 견고하게 구축된 혁명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혁명역량은 항미대결전에서 승리하여 민족해방혁명의 승리적 국면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역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성하기 위한 민족해방혁명을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있다는 말은, 남측에서 미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반미자주화운동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역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해방혁명의 한 구성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됩니다. 여기서 남측의 혁명역량은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능동적 주체로서 방조적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을 남측의 혁명역량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북측의 혁명역량이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일 계속)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11월 6일